

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

4.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? [신6:4-5]

✚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.



✚ 이 사진은 제목은 ‘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’입니다.

✚ 발레리나 강수진이 연습 후 집에 돌아와 아픈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사지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남편이 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.

✚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다운 그녀의 발레 동작들에 숨겨진 피나는 노력의 흔적을 보고 ‘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’이라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.

✚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? 동경 어린 찬사? 혹은 이렇게 미련하리만큼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비아냥?

✚ 모든 발레리나가 이런 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녀의 발은 자신이 사랑했던 발레를 향한 ()의 산물이었습니다.

❖ 모든 신앙인들이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. 여러분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
있나요?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지는
않은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✎ 열정에 관한 명언을 살펴봅시다.

너는 왜 열정 없이 살아가는가?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! - 존 F. 케네디

⇒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주제의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열정 없이 살아가는
너의 문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폄하하지 말라고 비난합니다.

열정은 강물과 바다를 닮았다. 얇으면 증얼거리고 깊으면 잠잠하다. - 윌터 로리

⇒ 윌터 로리 또한 “이정도면 됐지 꼭 그렇게 까지 해야해?”라는 증얼거림은 당신이
열정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

✎ 오늘 주제를 두 가지고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.

- ① 이 정도 살면 됐지
- ②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?

✎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이들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물었는지 생각하며
되물어봅시다.

- ① 이 정도 살면 됐지
 - 1) 그럼 현재 당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인가?
 - 2)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은 싫다는 것인가?
 - 3) ‘잘 안 되면 어떡하지?’라는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하는 말인가?
 - 4) 열정 없이 시시하게 살아가는 자기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인가?
 - 5)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던 모든 꿈을 이룬 감격이 담긴 말인가?

❖ ‘이 정도 살면 됐지’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어떤
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걸까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.

✎ 두 번째 질문인 ‘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?’라는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?

- ① 어떤 ()에 관한 것은 아닐까?
- ②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?
ex) 그렇게까지 행동해야 하나?, 그렇게까지 살아야하나?

✎ 적어도 그들은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()이나 ()에 대해 말하고
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
⇒ 그들은 믿음을 ()이나 ()으로 인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.

✚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질문한 사람과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- ① 그렇다면 믿는 것을 마음에만 담아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보 같다는 말인가?
- ② 생명을 바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동경 또는 비웃음이 담긴 말인가?
- ③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인가? 아니면 비난인가?

✚ 언제나 ()하는 신념이 ()하는 신념이 된 사람들은 당대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역사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.

✚ 마지막으로 우리는 ‘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?’라는 물음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닌 ()와 ()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달해야 합니다.

⇒ 땅의 사람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열정과 믿음은 ‘있어야 하나 없어도 되나’의 논쟁이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진리임을 전달해야 합니다.

❖ 나는 생각하는 믿음, 알고 있는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, 경험되는 믿음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✚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00년 전,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약 3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()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

✚ 모세는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두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.

- ① “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”
⇒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모세는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.
- ② “여호와를 ()하라”
⇒ 신이란 복종의 대상, 섬김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모세는 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.

✚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합니다.

- ① ()을 다하여 사랑하라
⇒ 너의 지, 정, 의를 포함한 정신적인 본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
- ② ()을 다하여 사랑하라
⇒ 너의 생명, 호흡,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
- ③ ()을 다하여 사랑하라
⇒ 너의 모든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사랑하라

✚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 뿐이었습니다. 신이란 맹목적인 복종의 대상이었고 섬김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셨습니다. 결국 이 사랑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.

✚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. 그렇기에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도 합당한 요구였습니다.

⇒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.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.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.

✚ 랄프 호드슨은 “어떤 것을 보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.”고 말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음을 믿으면 그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.

✚ 존 스튜어드 밀은 “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오직 관심만 가진 29명의 사람의 힘과 같다.”고 말합니다. 하나님 앞에 100% 헌신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99% 헌신 된 100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니다.

❖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외워봅시다.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인지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인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✂ 마지막 그들의 질문에 답해봅시다.

* 이 정도 살면 됐지

⇒ 동의하지 않습니다. 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. 한 번 뿐인 삶을 시시하게 살고 싶으신가요?

*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합니까?

⇒ 그렇습니다. 나를 위해 십가자를 지신 그분,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